

# 2025년 미국 노동시장 전망

**Randall W. Eberts** (Senior Researcher,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 서론 :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24년 미국 대선 일반투표(popular vote)를 돌아해보면 미국이 얼마나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던 날 밤, 자신이 “전례 없는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의하면 실상은 그와 다르게 상대 후보와의 득표차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 트럼프로서는 일반투표 중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지만, 여전히 전체 유권자 투표수의 절반에는 조금 못 미쳤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상대보다 일반투표 득표수가 적었지만 그 후보는 더 많은 표를 받아왔다. 그래도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표만큼은 아니었다(706만 표 차이). 2024년 대선 일반투표에서 트럼프는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보다 248만 표를 더 얻었다. 일반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각 주에 할당된 상·하원 수와 같은데, 각 주는 주별 하원의원 수와 두 명의 상원의원을 합한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보유한다. 앨 고어가 부시를 상대로 출마했던 2000년 “떨어지지 않은 천공 조각(hanging chad)”으로 악명 높은 플로리다 투표를 제외하면, 21세기에 이번만큼 득표 차이가 적었던 대선은 없었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250만 표 미만이라는 점은 미국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양극화된 유권자는 양극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신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투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중범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례이며, 당선자가 유권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의 유세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고 참석자들은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대로 민주당원들은 저속하고 비도덕적이며 국법을 쉽게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이민,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 등과 관련하여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고, 미국의 일자리, 채용 및 퇴직, GDP, 최저임금, 노동권, 유급가족의료휴가법에 대해 전망한다.

## ■ 이민

트럼프의 2025년 및 이후 재임 기간에 대한 이민 정책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엄격한 국경 조치를 실시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지하여 대대적인 이민자 구금 및 추방을 단행하고자 한다. 2016년 대선 당시 멕시코 국경을 따라 대규모 장벽을 설치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그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민이 트럼프의 가장 큰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며, 장벽 대신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에 대한 법 집행 및 추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가 차기 정부에서 소환하겠다고 예고한 법 중 하나가 1798년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이다. 트럼프는 이 법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자와 관련된 불법 활동을 근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적성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원주민, 시민, 거주민 또는 국민”은 “적성국 국민으로서 체포, 구금, 보안 조치 및 추방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다.

- 미국과 “외국 국가 또는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언되는 경우, 또는
- “외국 국가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미국 영토에 대한 침입 또는 약탈적 침입이 자행 또는 시도되거나 그러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그리고
- “대통령이 그러한 사태를 공표하는 경우”

하지만 의회는 한동안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집행 명령을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큰 여러 연방법원도 그러한 구시대적인 법을 소환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실제로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적용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1812년 전쟁 때에는 미국 내 프랑스인을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이 미국의 반대편에 섰던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독일 남성을 억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수만 명의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을 억류하는 데 법이 사용되었는데, 신문 편집자, 무술 지도자, 심지어 승려와 지역 인사를 포함한 3만여 명이 법의 통제를 받았다. 일본인 약 10만 명이 억류되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는 동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정명령 때문이었다. 「적성국 국민법」의 「참담한 역사」는 이 법이 왜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 ■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해리스를 비판한 이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일부 정치인이 생각하듯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단순한 가격 수준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은 “트럼프의 공약에는 많은 인플레이션 압박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멕시코산 제품에 25%, 그 외 국가 제품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이러한 관세만으로도 물가가 5.1%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가정의 옷장에 있는 물건 중 약 98%가 수입품이며, 높은 관세 비용은 수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농업과 건설업에서 노동력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 확대도 공약했는데,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더 많은 돈이 제한된 상품을 쫓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하거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오디오 스피커 생산업체 MISCO는 현 사장이자 CEO인 댄 디저의 부친이 1949년에 창업한 이래로 스피커를 생산해 오고 있다. 댄 디저에 의하

면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라 스피커의 가장 큰 핵심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한다. 이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데 중국산 스피커에는 관세가 7%만 부과된다. 스피커 전체를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면 현재 베트남 제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연방준비제도 정책

연준도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문제 중 하나는 연준의 독립성이다. 설립 이래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준의 주요 역할은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임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가와 관련하여 연준은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가 충분히 활발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설정 방식에 발언권을 갖고자 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트럼프가 연준에 본인의 방식대로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할 수 없지만 파월의 임기는 트럼프 임기보다 2년 앞선 2026년에 종료되므로,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밖 다른 국가의 혼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국제 자산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자산 피난처로 여겨지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돈이 늘어나면서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기업, 개인, 미국 정부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돈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 적어도 특정 지역의 혼란을 지속시킬 만한 유인이 있다.

## ■ GDP, 고용 및 실업

2024년 11월 15일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은 실질 GDP, 실업률, 일자리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예측전문가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 산출량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측정치인 실

질 GDP의 경우, 전문가들은 2024년 4분기에 연평균 2.2%, 2025년 1분기에는 이전 조사 예측치인 1.7%보다 높은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기준으로 2024년에는 2.7%, 2025년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 전망은 3개월 전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 연평균 기준 2025년 실업률은 4.0%에서 4.3%로 증가하고 이후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4.2%, 4.1%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 조사 결과와 0.1%p 미만의 차이이다.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고용 수치에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월평균 신규 사업체 일자리(payload)는 20만 8,400개, 2025년은 그보다 훨씬 적은 13만 4,100개로 전망된다. 2025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월 12만 3,700개에서 시작해서 약간 감소한 후 4분기에 월 12만 8,2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가 집중 공략했던 이슈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이었다. 하지만 예측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대침체 후 대부분의 기간에 관찰됐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이 2024년 4분기에 연평균 2.2%를 기록하여 3개월 전 전망치인 2.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도 2024년 4분기에 조금 낮아진 연평균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24년 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2.9%로 예상되어 이전 조사 예측치인 2.6%보다 높아졌다. 2025년과 2026년 헤드라인 및 근원 CPI와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이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23%를 기록하여 이전의 고물가상승 전과 거의 동일한 수치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전 조사 예측치인 2.30%보다 낮은 수치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PCE 인플레이션은 2.10%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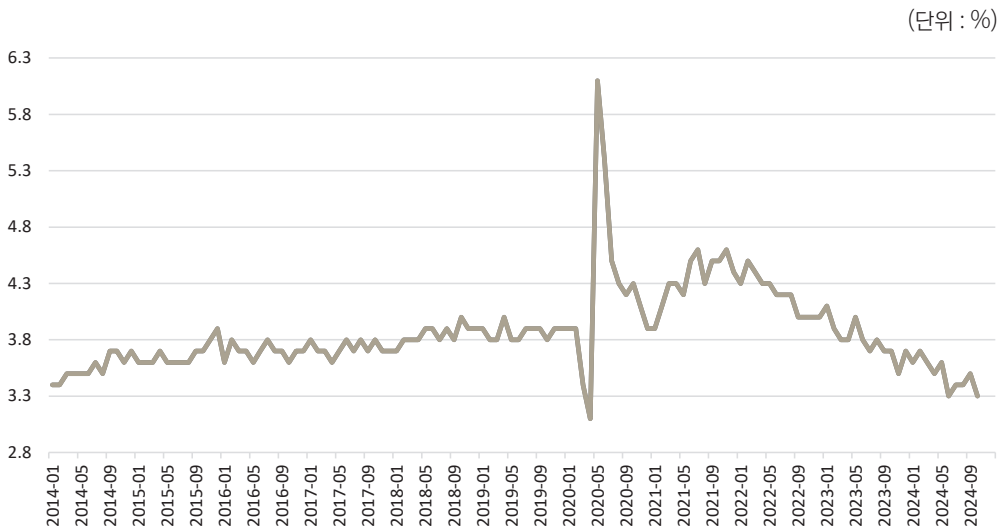
2024년 여름,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었고 발생 가능한 상황은 경기침체 아니면 “연착륙”이었다. 그러나 2024년 4분기 실질 GDP의 하락 가능성이 이전 조사치인 21.0%보다 훨씬 낮은 8.9%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려놓았다. 2024년만큼 분명하진 않지만 2025년에도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한 분기에서 연쇄가중 실질 GDP가 소폭 감소한 후 마지막 분기 때 다시 증가하여 2025년 전체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채용과 퇴직

미국은 팬데믹 이후 사업체 일자리 급증뿐만 아니라 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도 경험했다. 사업체 일자리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때 증가한다. 2021년에는 대부분의 기간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2021년 중반 채용률이 약 4.6%였는데, 이는 2020년 초 팬데믹하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2001년 구인이직보고서(JOLTS)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채용률이 치솟았고(2020년 5월 6.1%),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 수준인 3.4%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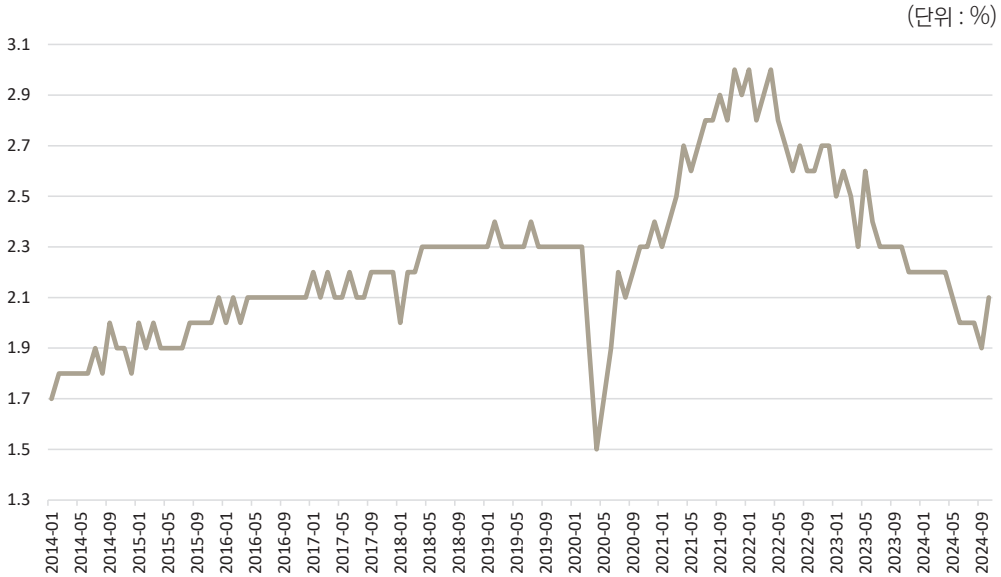
퇴직률도 안정되고 있다. 2022년에는 채용률과 퇴직률 모두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재정적인 안정보다 열정을 더 중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등장했다고 본다. 미시간 대학교 사회학 부교수와 학생이 팬데믹이 시작된 후 8개월 동안 정리해고 또는 일시해고된 미국 대졸 노동자 1,628명과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된 노동자들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13%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일자리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반면 46%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은 성별, 자녀

[그림 1] 비농업부문 채용률 추이(2014년 1월~2024년 10월)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5),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https://data.bls.gov/> (2025.1.7).

[그림 2] 비농업부문 퇴직률 추이(2014년 1월~2024년 10월)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5),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https://data.bls.gov/> (2025.1.7).

유무, 인종/민족 또는 출신 계층과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 ■ 최저임금

국가 고용법 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사상 최대 지역인 88개 관할지역(23개 주, 65개 시 및 카운티)에서 노동자 920만 명 이상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그중 70개 지역(9개 주, 61개 시 및 카운티)에서는 일부 또는 전체 노동자가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게 되며, 53개 지역(2개 주, 51개 시 및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를 넘을 예정이다.

뉴욕,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워싱턴,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주는 이미 최저시급이 15달러에 도달해, 현재 많은 주와 관할지역에서 해당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1일부로 일리노이,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

있으며, 오리건 주에서도 2025년 7월에 생계비 상승에 따라 최저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른 주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는 하지만 15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주리 주는 13.75달러, 네브래스카 주는 13.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네브래스카 주는 2026년 1월 1일을 기해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하와이, 미주리 주도 2026년이나 2027년에 15달러로 인상된다. NELP에 따르면, 총 16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오리건)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 이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거나 그럴 예정이다.

시 및 카운티 지역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주 40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한 47개 지역에서도 2025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예정이며, 해당 지역 대부분이 18달러 이상으로 인상된다. 워싱턴 주 버리언(Burien)시의 경우 이미 주 최저시급 16.28달러가 적용되고 있는데, 버리언 시가 속한 킹 카운티(King County)에서는 직원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최저시급이 21.16달러로 크게 오를 예정으로,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다.

한편 의회에서 결정하는 연방 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2009년에 현재의 최저임금이 책정된 이후 의회에서는 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현재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는 노동통계국이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1979년보다 훨씬 더 적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은 현재 1.1% 미만인 반면 1979년에는 13.4%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은 대규모 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 주별 노동권 및 가족휴가 관련법

노동권법(Right-to-work law)은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노조로 대표되는 직원이 반드시 조합원이거나 노조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권법이 적용되는 주에서도 노조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노동자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재 26개 주와 광에서 노동권법이 제정되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법안이 보류 중이며, 미시간 주에서는 노동권법이 폐지되면서 노동권법을 시행

중인 주가 하나 줄었다.

최저임금과 달리 유급가족의료휴가(PFML)를 의무화하는 연방법은 없다. 2024년 기준 1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PFML법을 시행 중이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 4개 주가 가장 먼저 법을 도입했다. 그중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2002년에, 뉴욕이 가장 늦은 2016년에 법을 통과시켰다. PFML법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에서는 대부분 사용자 및/또는 노동자가 납부하는 급여세(payroll tax)로 PFML 계획의 비용을 부담한다. 뉴욕 주는 사용자에게 민간 보험사를 통해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다. 의무적 PFML법은 일반적으로 직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병가가 주어지고, 연간 최대 52주의 근무기간에 대해 최소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워싱턴 D.C.는 연간 최대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9개 주에서는 민간 보험시장을 통한 PFML 혜택을 허용하는 자발적인 유급 가족 휴가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중 일부 주에서는 최소 2주의 휴가/급여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그 외 혜택은 보험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뉴햄프셔와 버몬트 주는 최소 6주간 혜택을 제공한다.

## ■ 결론

앞으로의 4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처우에서부터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키를 잡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관점까지, 미국을 위한 여러 변화를 약속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친노조 정책과 예산 증액에 대한 접근법 등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여러 변화의 조치들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역전될 것이다. 그간의 정책들은 적어도 월간 일자리 증가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효과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KLI**